

윌라 캐서리의 소설에 나타난 돌봄의 덕 윤리

변 효 정
(대진대학교)

Byun, Hyojeong. “Virtuous Care Ethics in Willa Cather’s Novel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3 (2020): 105-127.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ideal and communal life of future society through literature by analyzing care ethics in Willa Cather’s *O Pioneers!*, *The Professor’s House*, and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As an ethical analysis that has been lacking in discussion about Cather’s works, it aims to shed light on the aspects that the main characters of the works practice the values of a virtuous human society and care by pursuing a co-existence life based on emotional exchanges with the surrounding people. In these three works, Cather notes that each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mainstream society practices his/her own virtues by having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marginalized characters. He/She tries to communicate emotionally and commune with the surroundings in order to ultimately live a moral life as a right human being. Of course, in the process, the characters are directly involved in negative situations such as infidelity, evil, violence, jealousy, and feud, but they successfully practice their care ethics that can help overcome given difficulties and ensure human autonomy and welfare through trust and sympathy with the community. As such, care that can convey various lives of humans in storie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virtue in the end. Therefore, this paper observes the care aesthetics the characters embody focusing on their complementary lives, and further explores the potential for harmony and equality-oriented growth of the community that the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modern society. (Daejin University)

Key Words: care ethics, Willa Cather, *O Pioneers!*, *The Professor’s House*,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I. 들어가며

“삶 일반을 아우르는 개방적인 개념인 덕은 자율적으로 배우고 터득하는

것”(Meilaender 9)으로 “인간 개개인이 본성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성취할 수 있게”(Pieper xii)하여 인간 존재가 부단히 완성되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경식은 덕을 “인간본성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인간의 자기실현을 통한 행복을 성취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23-4)이라 정의하는데 이러한 덕은 자신과 주변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인간의 행복한 삶의 완성에 기여한다.¹

윌라 캐서(Willa Cather 1873~1947)는 일찍이 그녀의 작품들에서 덕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진단한다. 캐서는 네브래스카 대평원 대지 개척 이야기를 다룬 『오 개척자여!』(*O Pioneers!* 1912), 남서부 블루 메사(Blue Mesa)를 배경으로 미국사회의 속물성과 이기심 그리고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조명한 『교수의 집』(*The Professor's House* 1925), 그녀 자신이 “한 때 브라운(E. K. Brown)에게 자신이 가장 최고라 여기는 소설”(Woodress 391)로 칭한 두 성직자의 뉴멕시코 개척 이야기를 다룬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1927)를 통해 그녀만의 시선이 담긴 덕 윤리를 다채롭게 풀어내며 자신의 “도덕적 감수성과 그 이상의 것”(Edward and Lillian 199)을 보여준다.

이 세 작품들에 등장하는 각각의 주요 인물들은 주류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변화 된 인물들과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 자신들만의 고유한 덕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그들이 갖는 개인의 선의지, 관심과 배려, 공감과 헌신, 존중과 지지, 공존의 몸짓과 개척 정신 등으로 표출되며 그들이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인간다운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복 추구의 비전으로 구체화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과의 정서적 교류, 공감적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지향하는 돌봄의 미학을 실천한다. 자연계의 예술성에 주목하여 ‘돌봄의 미학’과 연결 짓는 조세핀 도노반(Josephine Donovan)은 자연이 전해주는 치유의 힘,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착취와 지배의 논리가 없는 평등한 세계 추구의 노력이 모두 미학적 돌봄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돌봄은 강제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¹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덕성을 함양하는 목적이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행복 또는 좋은 삶에 있다고 믿었다(프라이어 236).

는 영역인 만큼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의 예술성이 돋보여야 하는 분야이다.

돌봄의 미학에서 예술은 불가피하게 정원, 퀼트, 인도의 도기류에서와 같이 자연 환경을 수정하지만 자연 고유의 특성이나 가치 그리고 그 지역의 관계망을 보존 내지는 증진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가능한, 자연의 소재나 여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를 다시금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Under an aesthetics of care, then, while art inevitably modifies the natural environment, as in a garden, a quilt, Indian Pottery, it does so by reworking the natural material in such a way as to preserve or enhance its inherent character or value, its local web of relations, and, insofar as possible, without harming the natural material or context. (Donovan 62)

“돌봄은 세계를 구성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창출”(Benner and Wrubel 1)하는 분야로 이러한 돌봄의 개념에는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의 전 영역에 관련된 인간의 자율성과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간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돌봄은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까지 관여하기에 최종적으로는 덕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돌봄은 가족, 이웃, 동료, 공동체, 자연, 예술, 문화, 역사, 종교 등 모든 것들의 생명유지와 보존에 관련된 사유의 대상으로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덕의 특성과 그 궤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돌봄은 부정, 폭력, 이기심, 쾌락, 복종 등 부덕한 인간적 요소를 변화시키며 인간 개개인이 용기를 내어 각자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게 하고 인간의 가치 있는 존속에 기여한다. 그렇기에 캐서의 소설들에는 인간 돌봄, 문화 돌봄, 자연 돌봄, 동물 돌봄, 정서 돌봄, 공동체 돌봄 등이 조명되며 인간의 강인한 의지, 이성, 감성, 영혼이 조화를 이룬 행위의 미래 가치에 기여한다. 다시 말해 돌봄의 윤리로 미래형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돌봄의 자세를 제시하는 캐서의 작품들은 도덕적 창의성은 물론 미래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덕의 힘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그간 캐서의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네브래스카의 원시

적인 대평원을 일구는 개척 이야기, 대자연에 기반한 정체성 정립과 자아추구의 이야기, 다양한 유럽 이민자들의 신대륙 정착기, 작가 자신의 동성애에 기반한 동성애 코드 분석, 생태 여성주의적 해석 등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녀의 융합적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윤리적 해석으로써 그간 논의가 부족했던 돌봄 키워드를 진단하여 캐서 해석의 분석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캐서 작품들에 대한 윤리적 해석을 보완, 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녀의 작품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보다도 정서적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이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돌봄의 가치 있는 미래를 열고자 한다.

II. 부정(infidelity)과 폭력 그리고 실천적 돌봄

『오 개척자여!』에서는 인간과 자연 상호 간의 진정한 정서 교류를 통해 돌봄을 행하는 주인공 알렉산드라(Alexandra Bergson)와 그녀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동물 돌봄 애호가인 이바(Ivar)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캐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 돌봄을 실천하는 인물이 아닌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 행위가 자연과 도덕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하는 건강한 역할 모델로서의 주인공 알렉산드라의 삶을 조명한다. 아울러 캐서는 그녀의 협력적 상대이자 이 작품에서 주변화 된 인물로 설정된 이바를 통해 동물 돌봄과 자연 돌봄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며 자연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과 책임감의 의미를 함께 전하고 있다. 이바는 자신의 소신이 깃든 자연 돌봄을 행하며 돌봄이란 책임의 소산이자 비폭력의 원천임을 몸소 증명한다.

너는 동물들에게 구정물 그런 것을 먹인다고? 상한 우유도? 아아! 게다가 악취 나는 우리에서 키우고? 아아 알렉산드라, 우리 마을의 돼지들은 혹사를 당하고 있다 고!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돼지들처럼 깨끗하지가 않지. 만약 네가 닭을 그렇게 키운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는 조그만 수수밭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주위에 펜스를 두르고 돼지를 들여봐. 그늘 제공 차원에서 헛간과 기둥에 짚도 엮고 말이야. 너의 남동생들이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양껏 날라주게 하고. 오래된 더러

운 땅에서 꺼내서 겨울 때 까지는 그대로 뒀봐. 말이나 소에게 주듯이 그들에게도 곡식을 주고 깨끗한 먹이도 주고 그래봐. 돼지들은 더러운 것을 안 좋아 한다구.

You feed them swill and such stuff? Of course! And sour milk? Oh, yes! And keep them in a stinking pen? I tell you, sister, the hogs of this country are put upon! They become unclean, like the hogs in the Bible. If you kept your chickens like that, what would happen? You have a little sorghum patch, maybe? Put a fence around it, and turn the hogs in. Build a shed to give them shade, a thatch on poles. Let the boys haul water to them in barrels, clean water, and plenty. Get them off the old stinking ground, and do not let them go back there until winter. Give them only grain and clean feed, such as you would give horses or cattle. Hogs do not like to be filthy. (17)²

폭력이란 돌봄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바가 실천하는 동물 돌봄은 특히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종 차별(speciesism)’적 태도가 배제된 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말이나 돼지 그리고 새와 같은 동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동물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서식 환경을 돌보며 동물 복지에 집중한다. 그가 실천하는 돌봄은 자발적 돌봄³의 일환으로 그의 돌봄에는 적어도 고립, 은닉, 거짓 사랑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 대신 순수의 덕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돌봄은 대체로 비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바는 알렉산드라의 남동생들 중 하나인 루우(Lou)에게 사냥을 이유로 총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자신이 자연과 맺은 신뢰성의 중요성을 전한다. 이런 이바의 어필은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동물 윤리의 실천이 하나의 덕으로 여겨지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그렇기에 이바의 동물에 대한 의도적인 돌봄 행위는 그의 강인한 의지와 희생과 노력이라는 존엄한 의미와 함께 주변의 공감을 요구한다.

² 이후 『오 개척자여!』의 인용 내용은 페이지 숫자만 표기함

³ 카리 웨어니스(Kari Waerness)는 돌봄의 세 가지 형태인 자발적 돌봄, 필수 돌봄, 개인 서비스를 언급하며 자발적 돌봄을 기존의 돌봄 관계가 전무하다 해도 어떠한 기대나 대가 없이 필요한 돌봄을 제고하는 사마리아인의 선행의 종류로 바라보았다(Tronto *Caring Democracy* 22).

하지만 이런 이바의 남다른 동물 돌봄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수령의 마을 공동체는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며 알렉산드라에게 그를 고립된 죽음의 장소와도 같은 요양원으로 보낼 것을 종용한다. 사실 요양원은 걸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개인과 공동체가 불편해 하는 사람을 은닉시키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는 곧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바가 요양원으로 들어갈 경우 그로 상징되는 자연, 동물, 순수, 돌봄, 헌신 등의 의미는 이 작품에서 그 의미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알렉산드라는 이바가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의 철학을 좀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그녀만의 남다른 공감능력으로 단호히 이바를 끌어안는 의사결정력을 보여준다. “고통에 대한 공감적 의식은 그것을 목도하는 사람에게 ‘도덕적 끌림’을 산출”(에드워즈 237)하는 바,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인간 행위의 도덕적 차원, 용기,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간 상호 간의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는 돌봄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다시 말해, 알렉산드라가 실천하는 의도적 돌봄에는 약자에 대한 공감이라는 정서적인 측면과 그런 타인의 요구에 대한 지각적 반응이 겸비되어 있기에 인간 소외를 상쇄시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모범이 된다.

“사람은 자신의 현재 행동으로 미래를 만들어간다”(Tronto *Moral Boundaries* 24)는 말처럼 이바가 만들어가는 자연 돌봄의 정신은 곧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돌봄의 의미까지 되돌아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바는 알렉산드라와 다원적인 돌봄 논의를 통해 그녀의 인식 변화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그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녀만의 자율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준다. 그렇기에 알렉산드라 또한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주변의 음해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이바의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그녀는 훗날 자신의 남동생을 죽인 원수라 할 수 있는 프랭크(Frank Shabata)까지 끌어안으며 인간의 취약한 환경과 고통 분담의 공감적 토대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부정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에밀(Emil)과 마리(Marie)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폭력적인 성향의 프랭크의 분노와 순간적인 질투를 사는 바람에 살해되는 비극을 맞는 인물들이다. 특히 마리의 경우, 그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녀의 과수원은

향긋하고 먹음직한 것들로 풍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묘사되며 밀이며 오디와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어 그녀의 식물에 대한 돌봄의 정성이 엿보이는 공간이다. 이런 과수원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경제적으로 번성의 의미를 갖는 곳”(Tsank 153)인 만큼 그녀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녀는 불륜으로 인해 살해당하고 이 점은 이 작품의 충격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마리의 과수원은 일시에 불륜이라는 어긋난 돌봄이 행해진 부정의 장소로 탈바꿈하며 기쁨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얼룩지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만다. 다시 말해 그녀의 과수원은 폭력과 죽음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위험한 곳으로 그들의 죽음은 곧 공동체의 상실로 이어지고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한 규범의 덕 윤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부정에 따른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이바이다. 에밀과 마리는 뽕나무 아래서 서로 간의 신체가 맞닿은 채로 자연 속에서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누워있다. 이는 그들이 다시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이들의 죽음에는 질투와 부정과 폭력뿐만 아니라 자연의 덕의 중요성이 함께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이바는 자기 투영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돌보는 돌봄의 책임 완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동체가 거부한 그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공동의 돌봄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건강한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수의 집』에서는 인간의 부정과 폭력이 머더 이브(Mother Eve)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머더 이브는 톰(Tom Outland)이 블루 메사(Blue Mesa) 내 클리프 시티(Cliff City)라는 옛 선조들의 터전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목격한 여성 시신으로 그녀는 성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그 몰골이 너무도 끔찍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의 배경을 궁금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녀가 살해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옆구리에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고 살점이 없는 갈비뼈에는 관통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입은 마치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듯 열려 있었고 아직도 그녀의 얼굴에는 끔찍한 고통을 당한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코의 일부는 없었지만 치아는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촘촘했고 굵은 검은 머리는 풍성했다. 그녀의 치아는 심지어 하얗고 약간만 닳아 있어서 우리는 그녀가 젊은 여성이었을 것으로 확신했다.

We thought she had been murdered; there was a great wound in her side, the ribs stuck out through the dried flesh. Her mouth was open as if she were screaming, and her face, through all those years, had kept a look of terrible agony. Part of the nose was gone, but she had plenty of teeth, not one missing, and a great deal of coarse black hair. Her teeth were even and white, and so little worn that we thought she must have been a young woman. (192)⁴

이에 대해 뒤센 신부(Father Duchene)는 이 여성이 당시 아마도 젊은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탓에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란 존재가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벌할 수 있게 정당화되어 있었던 만큼 그는 이렇게 높은 곳에 살았던 선조들이 내부 사회에서 부대끼며 사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그녀가 살해당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공존을 지향하는 돌봄의 공간인 메사에서 그녀가 욕망에 충실한 나머지 ‘자제심의 부족’(akrasia)에 따른 부정의 비극을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있는 곳은 ‘독수리의 둥지’(the Eagle’s Nest)로 묘사되는 여성적인 공간에 중앙 탑이라는 남성성의 상징물이 있는 공간인 만큼 장소적으로도 “남성 질서의 원리”(Skaggs 28)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이곳에서 목도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남성 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머더 이브의 죽음의 배경을 떠나 그녀가 선사하는 메사라는 대자연의 공간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품, 도덕적 지표, 정신과 마음이 위안을 받는 장소, 우정의 장소로 비록 그녀는 생명이 없는 부정의 몸뚱이로서 존재하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자들로 하여금 도덕의 동기화를 활성화시킨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축인 피터(Godfrey St. Peter) 교수의 가족을 들여다보면 그의 아내인 릴리언(Lillian)과 큰 사위인 루이(Louie Marsellus)의 관계에서도 부정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릴리언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남편인 피터 교수 대신 톰의 아웃랜드 진공장치 특허권을 쥐고 있는 큰 사위 루이를 “남편의 대체 연인”(Goldberg 130)으로 여기며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그에게 발산

⁴ 이후 『교수의 집』의 인용 내용은 페이지 숫자만 표기함

한다. 이는 피터 교수가 탐욕에 눈이 먼 가족 구성원들을 떠나 옛집에 머무르며 내적인 갈등으로 인해 지난날에 대한 회상과 본연의 일에만 매진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에 릴리언은 화려한 새집에 머무르며 피터 교수와는 별거와 다를 바 없는 생활 속에서 루이와의 볼 키스며 즐거운 대화에 심취해 자신의 욕망을 잘못된 곳으로 분출시키며 살고 있다. 특히 톰의 일기 출판을 명목으로 두 사람은 베렌게리아(Berengaria) 호를 타고 프랑스로 여행을 가는데 이는 흡사 두 사람이 신혼 여행길에 오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며 부정으로써 돌봄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탐욕적인 루이가 행사하는 폭력은 정신적인 것으로 문제는 그의 행동이 피터 교수의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과 주변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있다. 그의 탐욕과 부의 과시는 피터 교수의 큰 딸과 작은 딸인 로자몬드(Rosamond)와 캐슬린(Kathleen)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피터 교수와 그의 직장 동료 교수인 크레인(Crane)의 사이 또한 틀어지게 만든다. 이에 더해 피터 교수의 둘째 사위인 스캇(Scott McGregor)도 루이의 무자비함으로 인해 가족 간에 생긴 불화의 심각성을 장인인 피터 교수에게 하소연하며 부의 폭력성을 부각시킨다.

이밖에도 이 작품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를 떠나 부정과 폭력에 관여되는 인물로 어릴 적 톰과 유일하게 가족처럼 지낸 떠돌이 노동자 로드니(Rodney Blake)가 조명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혼외정사로 이혼을 하자 집을 나온 인물로 훗날 피양세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다. 그는 톰과 함께 클리프 시티의 문화유산 발굴에 기여하지만 문화 돌봄을 실천하려는 톰과는 달리 유물을 팔아 부를 거머쥐려는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로드니의 얕은 생각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폭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산 자가 죽은 자를 지배하는 악행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가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유물도 있지만 머더 이브라는 미라가 된 선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유산들이 내가 처분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걸 파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 물론 너의 것도 아니지! 그것들은 이 도시와 국가 그리고 국민의 것이지. 그것들은 너와 나처럼 선조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야. 그런데 너는 그걸 챙겨가서는 이미 많은 유산을 가진 나라에 팔아버리다니. 너는 네 조국의 비밀을 팔아넘긴 거라고 . . .

But I never thought of selling them, because they weren't mine to sell—yours! They belonged to this country, to the State, and to all the people. They belonged to boys like you and me, that have no other ancestors to inherit from. You've gone and sold them to a country that's got plenty of relics of its own. You've gone and sold your country's secrets . . . (219)

이렇듯 톰은 끔찍한 문화 폭력을 자행한 로드니에게 일침을 가한다. 톰은 클리프 시티의 유물이 개인의 것이 아님을 믿지만 로드니는 이를 사적인 것 나아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약탈자와 다름없는 악덕을 자행하기 때문이다. 사실 클리프 시티는 뒤센 신부의 언급처럼 “인간성이 고양되는 장소”(199)로 신구의 합일의 공존적 장소인 만큼 옛 선조들이 이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꾸린 곳이다. 그렇기에 이를 감안할 때 이처럼 톰이 성토를 하는 것은 선조들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이자 인간의 지행합일론⁵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실천적 돌봄의 중요성을 로드니에게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 두 작품에서는 각 인물들의 실천적인 돌봄의 행위가 순수, 헌신, 평등, 문화, 공감의 행위로 조명되는 바, 이러한 돌봄의 원천은 예술의 속성 중 하나인 정서 교류를 통한 미학적 돌봄의 일환으로 보완되며 각 인물들의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리하여 이는 세계 공동체의 상황에 직면한 현 인류의 더욱 깊은 공감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III. 자연과 예술 그리고 미학적 돌봄

먼저 『교수의 집』에서 피터 교수의 예술성을 일깨우는 인물은 자연으로 대변

⁵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론은 ‘알면 곧 행한다’는 의미로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되는 톰으로 피터 교수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깊은 곳의 감정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다”(Grumbach 339). 톰은 비록 가난한 방랑자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만 옛 선조들의 유물을 발굴하여 후세대에 전해주려는 선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류의 미래에 이바지할 진공장치 개발에도 매진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가 이 작품 속에서 비록 각각의 인물들의 기억으로만 재현될지라도 피터 교수에게는 살아있는 듯한 존재로서 그의 사회 활동과 상상력에 기여하며 그로 하여금 예술적인 이상 세계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든다.

하지만 피터 교수는 현재 탐욕스러운 가족들과 지인들로 인해 옛집 다락방 서재에서 칩거하듯 지내고 있다. 톰도 없는 마당에 그는 기쁨 없이 살아가며 화려한 가구가 들어찬 새집이 아닌 이곳 서재에서 두 개의 여성 흉상⁶과 함께 할 뿐이다. 그런데 이 흉상들을 살펴보면 하나는 머리와 팔이 없는 채로 이 방의 가장 어두운 곳에 세워져 있는 나무로 된 것으로 이는 매년 담요와 겨울 보온용 랩이 씌워진 채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캐서는 이 토르소에 대해 “매정한 듯 하고 어쩐지 항상 피터 교수를 놀리는 듯 죽어 있는”(Hokum 177) 이미지라고 언급한다. 또한 나머지 하나는 다리가 없고 반짝이는 갈비뼈 속에 내장도 없이 가슴 부분이 견고한 와이어로 되어 있어 “새장이나 트랩을 연상시키며 피터 교수가 도피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Hokum 177). 이처럼 어쩐지 괴기한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한 피터 교수의 서재는 위치적으로는 지상 3층에 있으면서도 지하실과도 같은 느낌을 전해주며 무덤이나 관과 같은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의 상징적인 죽음과 피폐한 현 상태를 대변한다.

하지만 캐서는 “인간의 고통의 절박함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의 번성 그리고 이에 따른 상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Hokum 172)하는 만큼 피터 교수에게 이곳 다락방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공간임을 넘어 그가 평정심(atarxia)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매튜 호쿰(Matthew Hokum)은 마이클 프라이스(Michael Price)가 “피터 교수의 다락방 서재는 곰곰이 생각을 정리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언급하며 전형적

⁶ 사실 이 흉상(bust)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bustum*에서 온 것으로 장례식 건축물, 무덤, 화장용 장작더미를 의미하는데 캐서는 이전에 라틴어 교사 경력에 있어 이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것이다(Hokum 178).

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한다”(173)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만큼 피터 교수는 이곳을 유일하게 드나드는 제3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침모 오거스타(Augusta)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예술성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차츰차츰 얻게 된다. 이런 오거스타는 그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여하는 바, 그녀는 그의 미학적 돌봄의 실천자 역할을 한다.

오거스타는 옛집 주인의 조카로 피터 교수는 그녀를 자신의 두 딸들과는 다른 이미지의 여성으로 바라본다. 오거스타는 비록 예쁘지는 않지만 크고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어 돌봄을 실천하기에는 최적화 되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작품의 말미에 질식사의 위기에 처한 피터 교수를 가스가 가득 찬 그의 서재에서 끌어내는데 크게 공헌한다. 이에 더해 그녀의 일이 침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녀가 이 작품에서 피터 교수의 아픔을 봉합하고 정리해주는 ‘정신 돌봄’의 역할 또한 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는 자주 어떻게 그녀가 우산처럼 뻗뻗하게 접혔다 펴지는 손으로 용케도 바느질을 하는지 궁금했다 . . . 그녀는 키가 컸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밋밋하고 단호해 보이는 얼굴에 웃음기 없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바느질 문양들을 가르며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비록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그의 눈꺼풀에 손을 얹고 그녀 옆에 있었다.

He had often wondered how she managed to sew with hands that folded and unfolded as rigidly as umbrellas . . . She herself was tall, large-boned, flat and stiff, with a plain, solid face, and brown eyes not destitute of fun. As she knelt by the couch, sorting her patterns, he stood beside her, his hand on the lid, though it would have stayed up unsupported. (14)

실제로 오거스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쳐 있는 피터 교수로 하여금 과거 가족들과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현실 세계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피터 교수가 교수로서의 일에도 매진할 수 있게 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에 힘쓴다. 그런 오거스타는 이 작품에서 “통합의 인물”(Baker 264)로 사실 미비해 보이는 그녀의 역할에 비해 그녀는 자주 공동체의 교구민들의 임종 자리에도 참석을 요

청받을 정도로 중추적인 인물이다. 이런 오거스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혹독한 겨울이나 비 내리는 3월 혹은 자연의 슬픈 일들을 얘기하듯 죽음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며 자신의 소신대로 굳건하게 주변에 영감을 주고 주변을 두루 돌본다.

그가 생각하기에 오거스타는 항상 올바르게 치유를 해주는 듯 했다. . . . 그녀는 자주 교회에서 곧장 일찍 와서는 피터 교수의 가족이 깨기 전에 자신과 아침을 들었다. 그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우 자주 그에게 몇몇 쓸 만한 관찰 사항이나 신중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비록 그가 그러한 것에 움찔하더라도 무겁고 부담스러운 진실을 말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서, 그는 완전히 경청하진 않고 그러한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일어섰다.

Augusta, he reflected, had always been a corrective, a remedial influence. . . . She came early, often directly from church, and had her breakfast with the Professor, before the rest of the family were up. Very often she gave him some wise observation or discreet comment to begin the day with. She wasn't at all afraid to say things that were heavily, drearily true, and though he used to wince under them, he hurried off with the feeling that they were good for him, that he didn't have to hear such sayings half often enough. (255-56)

아울러 오거스타가 가지고 있는 인체 모형들 또한 피터 교수의 상상과 몽상의 촉매제가 된다. 이는 그녀를 대체하는 모형들로 피터 교수는 이 모형들과 함께 있는 다락방을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여기며 가족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문을 이어가는 돌봄의 장소로 인식한다.

비록 이 작품에서 오거스타와 피터 교수 사이에 오가는 대화나 교류는 적지만 그녀의 존재는 피터 교수의 삶의 질을 격상시킨다. 그 일환으로 어느 날 오거스타가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실현가능한 직접적인 돌봄으로 피터 교수는 유럽에 갔던 가족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답답한 마음으로 절대 깨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잠이 든다. 그런데 이때 켜져 있던 낡은 가스 스토브로

인해 그는 질식사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자신을 늘 관찰하고 보살피던 오거스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다. 이렇게 그녀에 의해 깨어난 피터 교수는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으며 스스로 그녀에게 곁에 있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의 이러한 변화된 태도는 비로소 그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주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타인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된 데서 오는 변화이다. 그리고 오거스타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에 피터 교수는 이제 “오거스타로 가득한 세상”(257)을 꿈꾼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는 “단순히 사제들의 험난한 종교적 개척 이야기만이 단편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개척의 과정 속에서 실천하는 식 윤리, 생명 윤리, 자연 윤리, 돌봄 윤리 등이 다채롭게 환기되고 있어 덕 윤리의 의미 확장에 기여한다”(변효정 47). 그중에서도 이 작품의 미학적 돌봄은 주인공 라투어(Jean Marie Latour)가 순수 자연으로 상징되는 뉴멕시코의 주변화 된 여성 인물들과 원주민들과의 신뢰와 우정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조명된다. 먼저 라투어가 여성 인물들과 맺는 돌봄 관계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서는 『교수의 집』의 머더 이브를 연상시키는 인물인 막달레나(Magdalena Valdez)가 초반에 등장하는데 그녀는 짐승과도 같은 남편 벅(Buck Scales)으로부터 6년 동안 정신적, 성적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온 인물이다. 라투어가 험난한 뉴멕시코로 건너와 성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조우한 그녀는 첫 만남에서부터 입을 굳게 다문 채 멍하니 눈을 떨구는가 하면 손을 덜덜 떨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극도로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다. 그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며 복종을 강요당하고 살아온 탓에 이러한 피폐한 삶에 체념한 듯 보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벅은 자신의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명까지 앗아간 악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돌봄이란 것이 가정생활의 중심임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가학적 보호는 남성이 여성을 보호라는 명분하에 두고 보호를 행하지 않는 “보호 공갈(protection racket)”(Young 14)로 만물을 생장시키는 여성이라는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비민주적인 돌봄이라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섭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달레나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라투어를 구하고자 몸짓으로나마 그에게 위협을 알림으로써 위기 속에서도

선한 의지를 발휘해 사제들을 구하는 책임감 있는 돌봄을 실천한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을 가르며 그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띤 모습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바닥 끝을 빠르게 끌어당겨 목을 가로질러 긁는 시늉을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With her finger she pointed them away, away!—two quick thrusts into the air. Then, with a look of horror beyond anything language could convey, she threw back her head and drew the edge of her palm quickly across her distended throat—and vanished. (68)⁷

막달레나의 이러한 용감한 몸짓은 그녀의 영적 측면과 책임 의식이 결합된 것으로 돌봄의 선순환을 불러와 이후 벽이라는 악이 응징을 받고 뉴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나마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훗날 성모 마리아(Virgin Mary)라 불리는 정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지며 폭력에서 해방된 변화된 빛을 발하며 그간의 고립된 객체에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돌봄의 주체로 거듭난 모습을 연출한다.

비둘기들이 막달레나의 팔과 어깨에 앉아 그녀의 손에서 모이를 먹었다. 그녀가 입술 사이에 빵 껍질을 가지고 있자 비둘기 두 마리가 그녀의 얼굴 앞 허공에서 날개를 휘저으며 빵 조각을 쪼아댔다. 그녀는 황금빛 두 뺨 아래에 진한 적갈색을 띤 어여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것이다.

They settled upon Magdalena's arms and shoulders, ate from her hand. When she put a crust of bread between her lips, two doves hung in the air before her face, stirring their wings and pecking at the morsel. A handsome woman she had grown to be, with her comely figure and the deep claret colour under the golden brown of her cheeks. (209)

이 작품에서 미학적 존재로 등장하는 멕시코인 사다(Sada) 또한 라투어를 정

⁷ 이후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의 인용 내용은 페이지 숫자만 표기함

신적으로 구원하는 존재이다. 비록 그녀는 추운 겨울에도 헛간에서 잠을 자는 미국인 가정의 노예지만 라투어가 성직자로서 방황하던 차에 나타나 종교의 신성한 기쁨을 선사하고 그가 훗날 산타페에 대성당을 건립하는데 있어 순교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라투어는 어느 추운 겨울 날 성모 예배소(Lady Chapel)라는 미학적 공간에서 사다가 몸소 전해주는 실천적 위안에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는다.⁸

그는 기적이 그녀의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눈을 통해 보았으며 자신도 그녀처럼 곤궁함을 알았다. . . . 이 교회는 사다의 집이고 그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인이었다.

He received the miracle in her heart into his own, saw through her eyes, knew that his poverty was as bleak as hers. . . . This church was Sada's House, and he was a servant in it. (217)

이처럼 라투어는 사다를 통해 성모 마리아와 다시금 정신적 교감을 이룬 듯 깨달음을 얻는다. 험지에서의 오랜 성직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던 그에게는 노예지만 그녀가 가진 숭고함이며 그녀의 험벗음이 오히려 신성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사다가 다시금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면서 하얀 눈 위에 남기는 족적마저도 그에게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순수한 믿음의 길로 인식된다.⁹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돌봄의 개념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와 인간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너른 포용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존, 공감, 헌신, 지지, 관심 등의 이상적인 요소가 가미될 때 비로소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룬 미학으로서의 돌봄이 완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학적 돌봄에는 돌봄의 의미가 갖는 타인을 걱정해 주는 마음과 함께 타인의 마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진정한 감정 교류가 그 근저를 이루어야

⁸ 사다가 라투어에게 전해주는 영성(spirituality)은 도구주의(Instrumentalism)와 연결되어 도덕적 이원론(moral dualism)을 상기시키는 바, “이 도덕적 이원론의 배면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도구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Plumwood 53).

⁹ 사라 엔서(Sarah Ensor)는 독신 생태학(Spinster Ecology)이라는 용어으로써 독신녀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미래를 돌보며 남성 같은 책임감을 실천한다”(409)고 언급한다.

한다. 이를 위해 이 작품에서는 라투어와 진정한 우정 관계를 맺는 원주민들이 등장함으로써 쾌락 추구, 아동 학대와 같은 “짐승의 삶”(프라이어 243)을 사는 타락한 사제들과는 다른 행보의 라투어와 그들의 삶이 함께 조명된다. 그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그들만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인물들로 그들의 태도에는 남다른 배려와 삶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라투어는 뉴멕시코에서 활동함에 있어 인도주의적인 방식의 가톨릭 정신을 실천하며 미학의 속성 중 하나인 감정 교류를 통해 이곳 원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그는 “캐서 소설의 전형적인 영웅”(Anders 126)으로 뉴멕시코 원주민들이 그간 그곳에 부임해 온 사제들이며 수녀들을 악한으로 여기던 생각들을 서서히 바꾸어 놓는다. 먼저 라투어에게 있어 낯선 곳일 뿐인 뉴멕시코라는 땅은 서로 간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으로 캐서는 이 작품에서 이러한 험난한 돌봄의 장소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주인공인 라투어로 하여금 이곳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며 그의 편견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 일환으로 이 작품의 초반부에 라투어는 황량한 사막을 걷다 쓰러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면서 복음 전파에 주력하는데 그는 우연히 들른 숨은 물(Aqua Secreta) 마을의 빈곤한 멕시코인 가정에서 나무로 된 성인들의 형상을 보고 자신이 본 석고로 된 형상보다 더 아름다운 원시적이고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는 원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고결한 신앙의 마음이자 그들을 야만적인 원주민이 아닌 평등한 주체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순수한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산 미겔(San Miguel)의 종 또한 원주민들의 순수한 예술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동서양의 문화 돌봄의 상징이 되어 라투어의 인식이 변화되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 종을 만드는 기술에는 유럽인, 멕시코인, 나바호족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무어인들의 은 기술이 전승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투어와 원주민의 정서적인 교감이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그가 하신토(Jacinto)와 동행하여 ‘입술 동굴’(Stone Lips)로 피신했을 때이다. 거센 눈보라를 피해 황급히 찾아 들어간 입술 동굴에서 라투어는 하신토의 도움을 받아 동굴 예배당과 같은 이곳에서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깨진 바닥 틈

에서 자연의 깊은 목소리를 접하며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 목소리는 고대 선조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인양 라투어로 하여금 위대한 자연의 힘과 다시 한 번 삶이 구원받는 느낌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신토는 낮선 동굴에 들어온 라투어를 배려해 담요와 따뜻한 불을 준비해 주고 점토 벽에 난 위화감을 주는 몇몇 구멍들을 감춰주기도 하며 그를 돌본다. “남성들에게 있어 우정은 종교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Anders 124)인 만큼 이런 하신토의 행동은 하나의 자연인 그가 배려, 선행, 자율성이 깃든 미학적 돌봄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자연 속에서 평등한 동료로서의 우정을 쌓는 모습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후 이와 같은 원주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라투어는 모든 우정의 최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대성당¹⁰을 이곳 산타페에 건립함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희생의 가치, 진정한 수용의 삶, 공동체적 돌봄의 진일보한 미래를 열 수 있는 비전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 이제 그는 성당을 짓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말하며 “지상에서의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과 조화의 기념물”(Broncano 134)인 상징적인 대성당을 건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예술과 종교의 결합이 전해주는 미학적 의미를 구현한다. 캐서가 이 작품을 통해 “특별한 존경의 표시”(Edward and Lillian 138)로 설정한 이 대성당은 이 작품의 미학적 돌봄이라는 키워드의 완성에 기여한다.

그녀가 예술을 종교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미심장한데, 그녀는 이 둘을 정화의 형태로 여기면서 이러한 것이 개인에게 비슷한 요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다고 생각했다.

Her virtual identification of art with religion is significant, for, regarding both as forms of consecration, she felt they made comparable demands on the individual and offered comparable rewards. (Edward and Lillian 138)

¹⁰ 피터 교수 또한 종교와 예술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며 삶의 의미를 찾는데 있어 이들이 평등하고도 보완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 . . 그리고 이는 캐서의 생각이기도 하다(Shively 19).

IV. 나가며

기본적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돌봄 윤리는 선행, 비폭력, 정의, 교감, 존중, 지지, 마음에 대한 책임, 공동체 의식을 포함하며 인류의 안녕을 기원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써 문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심리학, 인류학, 철학, 신학, 생명 윤리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관계에 방점이 찍히는 돌봄”(Tronto *Caring Democracy* 20)은 사랑이 깃든 노동으로 “삶을 지속시키는 관계망”(Tronto *Caring Democracy* 103) 속에서 도덕의 동기화, 정의 구현, 정신적 교감을 통한 성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밝은 미래에 기여한다. “면대 면으로 교류함에 있어 인간 개개인의 개인적인 필요나 복지를 제공하는 행동이 수반된 애정과 책임이 뒤섞인 감정”(Tronto *Caring Democracy* 20)인 돌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로 이 돌봄에는 평등과 자율성의 의미 나아가 여성성, 자연성, 창의성, 예술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미학과도 연결된다. 그렇기에 캐서는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각각의 주요 인물들이 주변과의 정서 교류를 중요시하면서도 자연과 예술과의 공존적인 삶을 지향하는 점에 집중하여 유덕한 인간 사회의 가치와 조화로운 돌봄의 덕의 의미를 조명한다.

캐서는 부정과 폭력이라는 관계 파괴적인 상황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순수한 돌봄의 마음과 인간을 존엄히 여기는 고결한 실천력이 이상적인 돌봄의 덕을 회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와 함께 예술과 동일시되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공감과 헌신, 지지와 소통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공존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모두 예술의 속성 중 하나인 정서적 교류로써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성이 회복되어 주체적인 삶의 의미가 발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먼저 “대지 소설”(Edward and Lillian 171)이라 불리는 『오 개척자여!』에서 캐서는 낯설고 척박한 네브래스카 대지를 일구며 강인한 개척자로 거듭나는 주인공 알렉산드라의 삶의 여정에 주목하면서도 부정과 폭력을 지양하는 그녀가 주변화 된 인물인 이바의 덕이 깃든 지혜와 동물과 자연을 돌보는 실천적 삶을 존중하며 공동체적 돌봄의 참의미를 구현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그녀와 이바는

모두 도덕적 덕을 실천하는 프로니모스¹¹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이 작품에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용기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선 진정한 교감의 의미와 평등 지향적인 동반 성장의 돌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돌봄의 참된 윤리적 가치를 전한다.

『교수의 집』에서는 피터 교수의 물질에 대한 냉소주의가 조명되는 가운데 권력과 물질과 욕망이 개입된 왜곡된 돌봄의 위험성과 함께 인류 발전과 공동체적 성장을 위한 대의적 돌봄의 가치가 피터 교수와 그의 가족, 톰, 그리고 주변인으로 설정된 머더 이브와 오거스타를 통해 조명된다. 캐서는 “진정한 예술을 시공간적인 자유의 산물”(Edward and Lillian 191)로 여기는 만큼 이 작품에서 그녀는 피터 교수가 톰과 오거스타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비전을 얻는 과정을 진정한 예술 구현의 차원에서 보여준다. 아울러 머더 이브와 오거스타의 존재로써 캐서는 악행 금지, 정의, 순수한 마음, 상호 교류, 인간 존엄성의 존중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룬 돌봄 예술의 의미를 전한다. 이 작품에서 머더 이브와 오거스타는 피터 교수와 톰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상징적인 주체로서 자신들의 삶의 내력과 실존의 의미 나아가 이상적 돌봄의 궁극적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에서는 캐서 자신의 애정이 담긴 장소이자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혐지인 뉴멕시코에 파견된 주인공 라투어가 성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곳 원주민들과 진정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순수성, 예술성, 자연과 신을 경배하는 일심에 감화되어 완벽한 공감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연과 합일하여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곳 원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진정성 있는 정서 교류를 통해 이곳에 대성당을 건립함으로써 미학적 돌봄의 참의미를 구현한다. 사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성당이 아니라 라투어의 삶의 역사와 영혼의 깨달음, 원주민들의 진실한 마음, 자연의

¹¹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이성적 측면을 따르는 실천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에게는 욕구와 감정에 대한 단순한 통제란 가치 없는 것으로 인간의 도덕적 덕에는 이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알렉산드라와 이바가 욕망이나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이성적 삶의 실현을 통해 덕의 균형을 잡고 있다.

예술성이 고루 조화를 갖춘 상징물로 이 작품에서 돌봄 미학의 최고봉이자 라투어의 상상력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로마네스크 대성당은 인간과 자연, 신구의 종교의 결합, 평화 구현과 창의성의 총체로 뉴멕시코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 돌봄 미학에 기여한다. 이로써 라투어는 뉴멕시코에서 성공적으로 38년간 복음을 전파한 후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고루 조화를 이룬 신성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캐서는 자신의 작품들에서 다양한 도덕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자칫 부담스러운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선, 공존, 신뢰, 존중, 용기, 사랑, 헌신, 금욕, 비폭력 등의 공동체적 상생의 정신을 구현한다. 그녀는 건강한 돌봄의 역할 모델로서의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류와 사회에 이바지할 상보적인 돌봄 실천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캐서는 예술적인 경험을 항상 “정신적인 경험이자 위대한 순간”(Edward and Lillian 163)이라 여기는 만큼 그녀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주역이 되게 하여 건강한 집단 의식, 상처의 치유, 공감적 소통, 공동의 행복 그리고 실천적 돌봄이 가져올 밝은 미래에 기여한다. 나아가 그녀는 현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도 그러한 위대한 순간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서로간의 진정한 관심을 통한 완벽한 공감으로써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참된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Works Cited

- Anders, John P. *Willa Cather's Sexual Aesthetics*. Lincoln & London: U of Nebraska P, 1999. Print.
- Baker, Anna. "Terrible Women: Gender, Platonism, and Christianity in Willa Cather's *The Professor's House*." *Western American Literature* 45.3 (2012): 252-72. Print.
- Benner, P. and J. Wrubel.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CA: Addison-Wesley, 1989. Print.

- Bloom, Edward A. and Lillian D. Bloom. *Willa Cather's Gift of Sympathy*.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62. Print.
- Broncano, Manuel. "Landscapes of the Magical: Cather's and Anaya's Explorations of the Southwest." *Willa Cather and the American Southwest*. Eds. John N. Swift and Joseph R. Urgo. Lincoln: UP of Nebraska, 2002. 124-35. Print.
- Byun, Hyojeong.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Reading Virtue Ethics with the Meaning of Food and Car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45-65. Print.
[변효정.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음식과 돌봄으로 살펴보는 덕 윤리(Virtue Ethics)." 『영어영문학연구』 46.1 (2020): 45-65.]
- Cather, Willa. *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New York: Alfred A. Knopf, 1981. Print.
_____. *O Pioneers!*. New York: Dover, 1993. Print.
_____. *The Professor's House*. New York: Vintage, 1990. Print.
- Donovan, Josephine. *The Aesthetics of Care: On the Literary Treatment of Animals*. New York: Bloomsbury, 2016. Print.
- Edwards, Steven D.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Trans. Byunghye Kong & Eunyong Hong. Seoul: Chulhakkwahyunsilsa Publishing, 2004. Print.
[에드워즈, 스티븐 D. 『돌봄과 치유의 철학』. 공병혜, 홍은영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 Ensor, Sarah. "Spinster Ecology: Rachel Carson, Sarah Orne Jewett, and Nonreproductive Futurity." *American Literature* 84.2 (2012): 409-35. Print.
- Goldberg, Jonathan. *Willa Cather and Others*. London: Duke UP, 2001. Print.
- Grumbach, Doris. "A Study of the Small Room in *The Professor's House*." *Women's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1 (1984): 327-45. Print.
- Hokum, Matthew. "The Passionless Bride: Love, Loss, and Lucretius in *The Professor's House*." *Willa Cather and the Arts*. Ed. Guy J. Reynolds. Lincoln: U of Nebraska P, 2020. 171-91. Print.
- Hwang, Gyungsig. *Modern Meaning of Virtue Ethics*. Seoul: Acanet, 2012. Print.
[황경식. 『덕윤리의 현대적 의의』. 서울: 아카넷, 2012.]
- Meilaender, G. C. *The Theory and Practice of Virtue*. Indiana: U of Norte Dame P, 1984. Print.
- Pieper, J. *The Four Cardinal Virtues*. Indiana: U of Norte Dame P, 1966. Print.
- Plumwood, Val.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3. Print.
- Prior, William J. *Virtue and Knowledge: An Introduction to Ancient Greek Ethics*. Kyunggi: Seokwangsa, 2010. Print.
[프라이어, 윌리엄 J. 『덕과 지식, 그리고 행복』. 경기: 서광사, 2010.]
- Shively, Steven B. "The Compatibility of Art and Religion for Willa Cather." *Willa Cather at*

- the Modernist Crux*. Eds. Ann Moseley, John J. Murphy, and Robert Thacker.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7. 19-42. Print.
- Skaggs, Merrill Maguire. "Willa Cather's Great Emersonian Environmental Quartet." *Cather Studies* 5. Ed. Susan J. Rosowski.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03. 199-215. Print.
- Tronto, Joan C. *Caring Democrac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P, 2013. Print.
- _____.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1993. Print.
- Tsank, Stephanie. "Under the White Mulberry Tree: Food and Artistry in Cather's Orchards." *Willa Cather and the Arts*. Ed. Guy J. Reynolds. Lincoln: U of Nebraska P, 2020. 152-70. Print.
- Woodress, James. *Willa Cather: A Literary Life*. Lincoln: U of Nebraska P, 1987. Print.
- Young, Iris Marion. "The Logic of Masculinist Protection: Reflections on the Current Security Stat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9.1 (2003): 1-24. Print.

변효정 (대진대학교/조교수)

주소: (11159)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이메일: byunglish@gmail.com

논문접수일: 2020. 06. 30 / 심사완료일: 2020. 08. 13 / 게재확정일: 2020. 08. 13